



공부가 되고 상식이 되는 시리즈 17

# 어린이를 위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야기

천윤정 지음, 박선하 그림  
팜파스 퍼냄 | 147쪽 | 값 12,000원 | 초등 고학년

## 책소개

**“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이 펼쳐진다고?  
상상 그 이상,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모든 것!”**

이 책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.  
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활약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생각해봅니다.

## 독후활동 주제망

가상현실과  
메타버스에 대해  
생생히 알아보자!

가상현실은 무엇일까요?

가상현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우리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을  
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?

●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!

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.

1.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!



2. 혹시 '가상현실, 메타버스' 하면 이미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?  
그렇다면 그것을 자유로이 적어보고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!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3. <어린이를 위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야기> 표지에 등장하지 않는 낱말을 찾아보세요!

가상

진짜

유니버스

지상

현실

여행

가짜

메타

주말

이상

●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!

● 가상현실은 무엇일까요?

“으으으악!”

둘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. 그랬더니 대치하던 벨로시랍토르와 티라노사우루스까지도 둘을 쫓아오기 시작했다.

쿵. 쿵.

바로 뒤에까지 공룡의 발자국 소리가 닿은 것 같았다. 부리나케 뛰던 새롬이가 갑자기 대리석 바닥에 죽 미끄러졌다. 때마침 새롬이를 향해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입을 찹 하고 벌렸다. 거대한 공룡이 새롬이의 아바타를 한입에 꿀꺽하려는 순간, 둘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.

“헐!!”

마로는 HMD(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)를 벗어던지며 숨을 몰아쉬었다. 새롬이 역시 VR 기기들을 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. 지금까지 □□□□ 게임을 많이 했지만, 이렇게까지 현실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다.

“와. 나도 모르게 게임 종료를 해 버렸어.”

“나도. 진짜 먹히는 줄 알았네.”

“나 아직도 소름이 돋아. 너도 그래?”

“응. 뒷목에 콧김까지 느껴지는 것 같더라.”

정말 무시무시했다. 마로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.

1. 다음은 책 속의 한 장면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!

□ □ □ □

2. 밑줄 친 부분을 볼 때 가상현실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한번 적어 보세요!

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.

## ●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동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실제로 동물들을 해부하지 않고도 증강현실 기술로 그 내부를 알아볼 수 있어. 아니면 동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. 즉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. 요즘에는 특히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지.

의과 대학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어려운 수술이나 해부 실습을 할 수 있어. 공과 대학에서도 위험한 실험들을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 대신할 수 있어.

이 밖에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를 체험해 보며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도 가능해. 가상현실에서 지진을 겪으며 실제 지진이 났을 때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.

소방관이나 군인, 경찰들은 화재 현장 같은 위험한 훈련을 가상현실 속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. 소방관들이 연기와 불 때문에 탈출로를 찾을 수 없을 때, 증강현실(AR) 안경을 쓰면 다른 소방관들이 원격으로 알려 주는 탈출로 이미지를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지.

또한 가상현실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는 것보다 더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어.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을 억지로 가두지 않아도 돼.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자신만의 식물을 만들 수도 있어. 서툴게 다루다가 식물이 죽는 일도 줄어들겠지?

### 1.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?

위의 본문을 읽고 가상현실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아요!

-

---

-

---

-

---

### 2. 이처럼 가상현실, 메타버스 기술을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? 장점에 대해 써보세요!

-

---

-

---

-

---

● 우리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?

새롬이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.

“근데 새롬아. 무슨 일 있어?”

“뭐가?”

“그냥 좀 힘이 없어 보이네.”

“맞아. 너 오늘 좀 멍해.”

늘봄이의 걱정애 마로까지 합세했다.

(중략)

“실은 어제 TV에서 팔머 럭키를 봤거든.”

“팔머?”

“가상현실 기기 제작자 팔머 럭키 말이야. 근데 TV에 나오는데 꼭 내 친구인 것 같았어.”

새롬이의 말에 마로와 늘봄이의 얼굴에 물음표가 잔뜩 떠올랐다.

“그게 무슨 말이야?”

“나 팔머 럭키 아바타랑 가상현실 게임을 했다고 했잖아. 그때 팔머 아바타랑 되게 재밌었거든.

근데 그 팔머가 TV에 나오니까 엄청 반갑고 친구 같더라고. 너희 같은 실제 친구 말이야.

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.”

“아하. 그래서 그런 멍한 얼굴이었구나?”

“안 멍했거든?”

새롬이가 발끈하자 마로는 킁킁했다. 마로는 문득 어제 한 가상 게임이 떠올랐다.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는 멋진 엘프가 되어 숲을 날아다녔다. 그런데 게임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니 자신을 반기는 건 학교 숙제뿐이었다.

“나도 어제 게임하고 나니깐 갑자기 우울해지긴 했어. 게임에서는 멋지게 숲을 구했는데,

현실에 오니 숙제만 있잖아. 숙제고 뭐고 다시 게임 속에 들어가고 싶더라.

너무 진짜 같은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”

마로의 말에 새롬이가 한숨을 내쉬었다.

“맞아. 엄마랑 선생님도 가상현실 기기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오래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.

학교에서는 아예 가상현실 기기를 못 쓰게 하고. 나는 앞으로 더 좋은 가상현실 기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러다가 가상현실 기술들이 사라지면 어쩌지.”

1. 위의 본문에서 새롬이는 왜 표정이 밝지 않았을까요? 새롬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?

새롬이의 고민을 적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!

2. 밑줄 친 마로의 경험을 읽어보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.

그리고 함께 친구와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.

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.

## [ 정 답 ]

## ● 책 읽기 전에 해보세요!

1.



2. 로블록스. 제페토. 가상현실 게임. 코딩. 아바타.

3. 유니버스, 지상, 여행, 가짜, 주말

## ● 책 읽기 전에 해보세요!

1. 가상현실.

2. 실제 같은 느낌을 준다. 보는 것과 소리가 들리는 것과 촉각이 진짜처럼 생생하다.

## ●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1.

- 동물을 직접 해부하지 않고도 동물의 내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
- 가상현실을 사용해 온라인 수업을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.
-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수술이나 해부 실습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
- 과학, 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위험한 실험을 가상현실 기술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생생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- 소방관, 군인, 경찰들은 화재 현장 같은 위험한 훈련을 가상현실 속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상현실 기술로 동물원과 수족관에 가지 않고도 진짜처럼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.

## [ 정 답 ]

2.

- 실습과 공부를 위해 동물을 가두지 않아도 되어,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 
동물 해부 등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위험한 상황에 대해 실전처럼 미리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수업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, 시간과 장소의  
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.

## ● 우리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?

1.

- 새롭이가 가상현실 게임에서 만난 아바타 '팔머'와 실제 인물 '팔머'는 다른 사람입니다.  
. 그런데 게임 속 아바타 '팔머'는 새롭이의 친한 친구였는데,  
실제 '팔머'는 자신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.

2. 마로처럼 게임 속 자신이 더 마음에 들고, 게임 속 세상과 체험이 현실보다 더 즐거웠던 적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.